

삼성, 427헬기 최초 수주 시티항공에 5대

삼성항공이 개발중인 삼성-벨 427 헬기를 처음으로 수주, 국산 헬기 판매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다.

동 헬기의 아시아지역 판권을 소유하고 있는 삼성항공은 지난 서울에어쇼'96 기간중 시티항공으로부터 삼성-벨 427헬기 5대를 수주, 99년부터 인도키로 했다.

동 헬기는 지난 9월중 영국에서 개최된 판보로에어쇼에서 이미 20여대를 삼성항공의 개발파트너인 벨(Bell)사의 이름으로 수주된 바 있으며 구매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항공은 삼성-벨 427헬기의 향후 전세계 공급물량인 1,200대분의 동체를 2012년까지 독점 공



UH-60 100대 출고식 장면

급할 예정이며 99년부터 국내시장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시장에 연 평균 완제가 30여대를 판매할 계획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인 헬기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선 계획이다.

대한항공, 국산 중형헬기 출고

대한항공은 지난 10월 17일부터 이틀간 중형기동헬기 UH-60P 100대 출고 기념행사를 서

울과 부산 김해공장에서 개최하였다.

정부인사, 군관계자를 비롯해 동 헬기의 제작에 참여한 미 시콜스키, GE사 관계자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행사는 우리 공군의 주력헬기인 UH-60P 기종의 100대 출고를 기념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군 방위전력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동 사업은 국내 항공산업의 육성과 함께 우리 군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지난 1990년

대한항공이 선정된 이래 현재 99대가 야전에 배치, 각군의 주력헬기로 운영되고 있다.

대한항공에서 생산중인 UH-60헬기는 현재 미 육군헬기인 UH-60L의 기본형상에 한반도 지형에 적합하도록 개량하여 UH-60P로 명명된 한국군의 주력헬기로서 요인 수송 및 작전지원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99년부터 삼성항공이 시티항공에 인도할 삼성-벨427헬기

삼성항공, 가에 헬기엔진 공급

삼성항공은 지난 23일 서울에 어쇼 '96에서 캐나다의 소형 항공기 엔진 생산 전문업체인 플릿 엔히트니 캐나다사와 PW206D 헬기 엔진 생산계약을 체결했다.

이 헬기 엔진은 '98년 삼성항공과 미국 벨사가 공동개발해 생산할 삼성-벨427 헬기에 장착될 엔진이다. 동사가 생산하게 될 PW206D 엔진은 611마력의 경량급과 중량급 헬기용 엔진으로 900마력까지 개조할 수 있어 다양한 헬기에 장착할 수 있다.

이번의 헬기 엔진의 면허 생산으로 최신 헬기 엔진 관련 기술을 습득하게 돼 앞으로 독자모델 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또 삼성항공은 GE사와 산업용 중형 가스터빈엔진 LM2500 국제공동개발사업은 33,000마력의 25MW급 출력을 갖는 항공기 가스터빈의 파생형이다. 이 엔진은 열병합발전과 복합발전선박, 대형압축기, 펌프구동용으로 사용되는 중형 가스터빈이다. 삼성항공은 국제공동개발을 통해 '97년부터 이 엔진 부품을 생산, 공급키로 했으며 산업용 중형 가스터빈엔진 완제품은 '98년부터 국내에서 면허생산키로 했다.



보잉 777, 중대결함발견

미국 보잉 777 여객기에 중대 결함이 발견,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미 연방항공국 FAA는 지난 10월 24일 보잉사의 B777-200 여객기의 조종사석에 설치돼 있는 경보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보잉사에 진상조사 및 부품교체를 긴급 지시했다.

FAA의 보잉사에 대한 이번 조치명령은 보잉 777 여객기의 조종사석 경보기 작동 스위치와 앞쪽 화물칸의 소화장치에 결함이 발견됐다는 지난 5월 자체조사보고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함이 발견돼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연료, 냉방기, 화물칸 소

화장치등 운항시스템상 중요한 10곳의 스위치와 플랩부문으로 확인됐다. FAA는 이 외에도 76군데의 다른 스위치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FAA측은 이에따라 오는 11월 25일까지 조사를 마무리짓고 결함이 발견된 비행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운항을 전면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임러벤츠, 항공기용 대체연료 개발 관심

독일의 다임러벤츠가 기존의 연료 대신 수소를 이용한 제트기 개발을 미래 여객기 시장의 승부처로 선언하고 나섰다.

이달초 다임러벤츠 에어로스페이스(DASA)의 하인러 쿨록 기술이사는 독일 언론과의 회견에

서 다사의 장기적 전략목표는 대체연료 부문의 선두주자가 되는 것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명확히 했다.

수소제트기가 관심을 끄는 것은 크게 두가지 이유에서다. 첫째는 대기중의 수소를 무한정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환경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수소제트기는 기존 제트기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 제2의 대기오염원인 산화질소도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

문제는 실용화할 수 있을만큼 기술개발과 비용절감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현재 수소제트기 개발의 최대 걸림돌은 극저온 냉각기술을 이용해 가스를 영하 2백53도까지 냉각시켜 액화수소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또 이 액화수소를 초냉각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완벽한 절연체를 개발하고, 액화수소를 저장하는

데 필요한 대형탱크를 비행기에 어떻게 설치하느냐는 것도 숙제 중의 하나다. 아직까지는 수소가스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등유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다는 경제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DASA는 우선 견본기 제조공장을 건설해 수소 추진 에어버스 모형을 제작하는 데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동는 이미 합작사인 러시아의 비행기설계연구소 투폴레프가 TU-154 제트여객기를 개조해 만든 수소제트기 모형과 관련한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수소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응결수증기가 지구 온난화 효과를 가속화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러,노동자들 수호이 합병 반대

수호이 설계국(OKB)과 수호

이 비행기 생산 공장들의 합병 움직임은 정부의 은밀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주 생산 공장들 중 한 생산 공장의 반대에 부딪혀 곤경에 빠졌다.

APC(Aviation Production Concern) 수호이는 보리스 옐친 대통령의 지시로 올해 8월 설립되었다. APC 수호이는 수호이 설계국과 Novosibirsk, Komsomolsk, Irkutsk 항공기 생산 공장들을 통합하려 하고 있다.

소식통에 의하면 Komsomolsk 공장 노동 조합은 만약 합병이 시작되면 파업을 할 것이라며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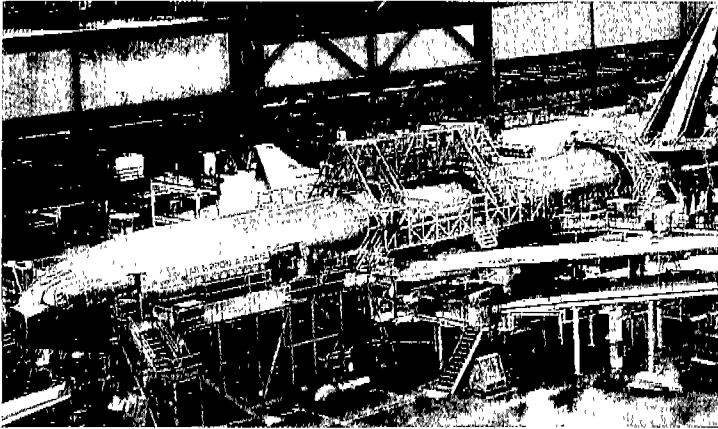
Novosibirsk와 Komsomolsk 생산 공장들은 각각 Su-27IB 전투기와 Su-27/27K 전투기를 생산하고 있는 국유 공장들이다. 또한 APC 수호이는 Su-30과 Su-27UB를 생산하는 Irkutsk 공장의 국가소유주식에 대한 통제를 하려 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부는 10월 이전에 새로운 위원회의 설립을 마무리할 것을 수호이사에 명령했으며, 경쟁 전투기 설계국인 미코얀 설계국은 똑같은 방식으로 재조직됐다.

누가 APC 수호이를 주도할 것인지에 대한 수호이 설계국과 생산공장 경영진간의 논쟁은 수



Komsomolsk 노동조합은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일본은 747X의 날개 제작과 함께 777사업에서의 지분을 확대할 계획

호이 내부의 권력 투쟁을 보여 주는 것이다. APC 수호이의 위 원장은 정부에 의해 임명될 것이다.

MD-XX계획 난항

미국 맥도널더글라스사는 초대형 장거리 제트여객기를 만들려던 계획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MD-XX계획으로 알려진 동사의 프로젝트는 그동안 에어버스의 A3XX, 보잉의 747X 프로젝트에 대응하는 하는 계획이었으나 30억달러나 드는 막대한 개발비에 대한 리스크때문에 이와같은 결정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사는 MD-XX 프로젝트와는 별도로 200-300석급의 중형급항공기를 개발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으며 최근 외국의 합작사를 물색중이라고 한다.

中 항공업 외국자본 허용

중국이 본격적인 대외 개방에 나서고 있다.

중국 항공행정을 총괄하는 중국민항총국은 지난 23일 산하 32개 항공업체에 대해 외국기업의 출자비율이 35%이하이고 외국인 임원수가 전체의 25%를 넘지 않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외국기업의 출자를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 기관은 또한 공항건설 사업에 중국측 기업의 출자액이 51%를 넘을 경우 합병회사 설립등 외국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기로 하고 내년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중국 항공시장은 미국의 보잉 등이 판매경쟁을 벌이고 있으나 대외개방이 확대될 경우 유럽과 일본의 항공업체와 공항건

설 업체들의 투지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은 항공부문에 대한 규제완화와 공항건설이 늦어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 등 경쟁국의 항공행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인하대, '96에어로피아 개최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학생회관 전시실에서 제 7회 항공학술제인 '96에어로피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삼성항공이 주최한 전국대학생 창작 모형항공기대회에 입상한 바 있는 전익기를 비롯, 비행시뮬레이터, 인력비행기, 수직 이착륙모형항공기 등 순수 장작품이 주류를 이루어 많은 이의 관심을 끌었다. 이외함께 항공대 유상신 교수, 국방과학연구소의 강위훈 박사를 초빙, 강연회를 개최했으며 로켓트발사, 전익기 비행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열렸다. 올해로 7번째 맞는 에어로피아행사는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학생들이 지난 84년부터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학술제 형식의 행사이다.